

대림 제4주일

2024. 12. 22 (다해) 제2345호

함께 걸어나가는
하느님 백성



복음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시는 분!”

루카 1,45

돌 드로잉

이춘만

2016

돌 위에 펜

가변

광주기독교박물관

입 당 송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제 1 독 서 미카 5,1-4ㄱ

제 2 독 서 히브 10,5-10

화 답 송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복음환호송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복 음 루카 1,39-45

영 성 제 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엘리사벳이 되어주는 삶

마리아는 자신이 마주한 상황 앞에서 낙담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한 이후에,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많은 고민 끝에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사실은, 단순히 친척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위 시선의 두려움, 당혹스러움을 느끼며,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터놓고 위로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해줄 이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사벳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엘리사벳과 같은 이를 필요합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엘리사벳처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한국인들은 남에게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른 사람이 무얼 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디를 다니는지? 다른 집의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어디서 사는지? 등등을 궁금해하고, 캐묻고,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은 엘리사벳처럼 의지가 관심이 아닌, 예수님을 심판하였던 이들처럼 주저앉히는 관심입니다.

방영 중인 한 드라마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학생이 복사를 서던 중 쓰러집니다. 그 이유가 약물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 아이들은 그 친구를 비웃으며 “누가 그러던데

그 형도 그랬다더라, 누가 그러던데 약발로 1등했다더라”며 수근거립니다. 그러자 주인공인 사제가 교실로 들어와 소리칩니다. “누가 그러는데? (그) 누가 누구야? 그리고 애 형 없어! 그 래 ○○이가 약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 모르는 사람들은 의심하고 비난할 수 있지. 적어도 너희들은 믿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같은 반 친구잖아! … 무턱대고 남 까는 거 그것도 마약이야.”

이 대사(臺詞)를 들으며 공감이 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되거나 잘못되면 축하해주거나 마음 아파하고, 헤아리려고 하기보다 비난하거나 소문을 내며,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귀를 기울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말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두 사람에게 기쁨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낸 기쁨은 고뇌를 이겨내고, 주님 탄생의 신비를 이루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만남이 누군가가 상처받고, 입에 오르내리는 누군가를 누르는 자리가 아닌, 격려와 위로, 친교를 이루는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어떨까요?



주영일 스테파노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코로나와 하느님 백성의 대화 (2)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2년 봄에 열렸던 ‘제3차 하느님 백성의 대화’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위기에 대한 성찰이 있었다.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팬데믹을



제3차 하느님 백성의 대화

겪으면서, 교회의 현주소를 인식하고 향후 교구의 사목 비전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교구의 미래 비전, 즉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면 대화가 풍성해질 것이라는 기대 아래 대화를 계획하였다. 우선 이를 위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평신도로서, 사목자로서 아쉬웠던 점에 대한 나눔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아울러 팬데믹 시대의 긍정적 사례도 함께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코로나19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다. 우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주일미사와 신심 행위 없이도 우리의 일상이 별 탈 없이 진행되어 가고 우리의 신앙이 변해가고 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았다.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전례를 대신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무뎠졌고, 아울러 모든 문제에 ‘코로나 때문에’라고 둘러대는 핑계 문화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동안 교회가 활동과 업무 중심으로 공동체를 유지해 왔고, 영적 돌봄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청년과 청소년들의 주일학교가 감소하였고, 사각지

대에 있는 신앙인들이 소외되는 모습을 보았다.

코로나의 충격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가르침만을 준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대단치 않게 생각했던 공동체 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성경쓰기나 개인적 기도 생활은 하느님과 깊이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우선 멈춤을 통해서 심의 영성을 배울 수 있었고, 방역 대처 과정에서 천주교 신자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교회의 모습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토론에서는 향후 광주대교구의 비전 세우기 작업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우리가 희미해진 신앙을 다시 단단하게 다지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종합한 결과, 젊은 이들을 위한 사목에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며, 생태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신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피정 프로그램의 확대, 가난한 이를 찾아가는 사목, 온라인 미사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는 교회, 경청하고 공감하는 사목, 본당 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일관성 있는 사목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크게 공감하였다.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사목국장



시노드 폐막을 보고



3년간의 긴 여정 끝에 세계주교시노드가 10월 27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하는 폐막미사로 막을 내렸다. 교황은 시노드 대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승인한 최종문서를 그대로 수용하고, 별도의 시노드 후속 사도적 권고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가톨릭교회는 처음으로 평신도들이 온전한 투표권을 갖고 참여한 이 역사적인 시노드의 최종 결과물을 바탕으로, 시노드 정신에 따른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최종 문서는 많은 가르침을 주지만 필자는 두 가지에 주목한다. 하나는 평신도들의 교회 생활 참여의 깊이와 폭을 확대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 직무자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다. 이 두 가지 안에 다른 모든 논의 결과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평신도들의 교회 생활 참여 확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설파한 이후,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하느님 백성은 다만 그 역할이 다를 뿐 모두 동등한 위치와 권위를 지니고 있음이 당연한 것이었다. 시노드는 공의회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애당초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초대교회의 원형에서 발견되는 이 가르침을 재확인하고, 교회 안에서 실제로 구현하기를 촉구한 것이다.

최종문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교황은 사도적 권고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 문서가 “이미 매우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문서는 본당 안에서 사목평의회 등 참여적 기구들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미 현재 교회법에 규정돼 있지만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 기구들이 ‘형식적’이 아니라 “그 역할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못 박았다.

문서는 또 주교와 사제가 신자들의 목소리를 경

청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 교구나 본당에서의 중요한 의사 결정 전에 자문을 구할 의무가 있고, 만약 자문이 실시됐다면 주교나 사제는 그 자문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선 안된다. 합당한 이유 없이 자문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이유가 있다면 적절하게 설명돼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지적과 권고, 의무화된 규정들이 명확하게 문서화돼 있다는 것에 대해 솔직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물론 세상과 교회가 점점 더 많이 변화하고 있다. 십수년 전까지 필자가 피부로 겪었던, 성직주의에 기반한 권위주의적인 교회 사목과 행정은 교회의 당연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여러 본당에서 이미 시노달리타스에 기반한 본당 사목을 위해 고심하는 사제들을 여럿 보았다. 어쩌면 그런 분들이 있기에 시노드가 가능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회는 이제 마무리된 시노드가 지향하는 방향, 모든 이가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결국은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 길은 필연이다. 문제는 그 길을 온전히 가는 날이 언제인가다. 너무 느려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된다. 이번 시노드가 그리도 시끌시끌했던 것은 길을 안 가려는 이들, 또는 너무 급하게 가려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한 탓이다. 그 소요는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그 자체가 시노달리타스의 한 측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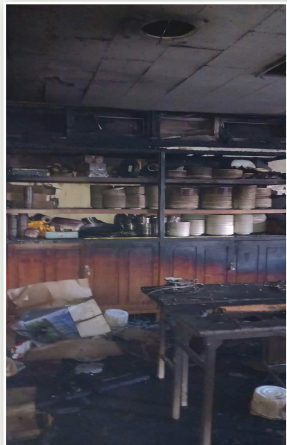
이제 가톨릭교회는 방향을 정하고 방법을 찾았으므로 신발 끈을 매고 시노달리타스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다.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과 교구별로 진행됐던 술한 교구 시노드들이 풍부한 말 잔치만으로 끝나지는 않았던가 하는 회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정밀하게 시노드가 제시한 지침들을 실제 교회 생활에 적용해야 한다.

박영호 안드레아
가톨릭신문 편집국장



화마로 인해 교육관, 식당 전소

매곡동 본당 화재... 사랑의 손길 요청



지난 11월 15일 밤 9시 30분쯤 매곡동 본당(주임 이영선 골룸바노 신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교육관과 식당이 전소되고 수녀원까지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성당까지는 불이 번지지 않았지만, 연기로 인해 열흘 동안 미사를 봉헌하지도 못했다.

본당 주임 이영선 신부는 “본당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신자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며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교구 신자들이 형제애를 발휘해주시길 간곡히 청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매곡동 본당 신자들은 화재로 탄 교육관 재건에 힘을 모으고 있으며, 하루속히 피해를 수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교우분들의 따뜻한 정성을 기다립니다. [문의 : 061) 752-1274]

※ 도움 주실 곳 : 농협 355-0009-8647-93 재법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2025년 1월 8일(수) 염주동 성당에서 아래 후보자들이 사제품과 부제품에 서품될 예정입니다. 만일 후보자를 서품하기에 장애가 되는 결함을 알면 누구든지 주님의 영광과 거룩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본당 신부나 주교에게 밝히 알릴 것이며, 또한 우리 모든 신자들은 후보자들을 위하여 주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시몬 대주교

서품공시

≫ 사제품 후보자(4명)

박찬규 미카엘	운남동
강민균 안드레아	원 동
이맑음 마오로	해 남
박휘영 사무엘	산정동

≫ 부제품 후보자(3명)

김요셉 요셉	월곡동
김해솔 시몬	봉선동
안지원 프란치스코	조례동



※ 공시 관련 문의 : 성소국장 신부 062) 380-2287

교구장 동정



- 12월 24일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북동)
12월 25일 이주민 성탄 대축일 미사(교구청)
12월 26일 은혜학교 성탄 대축일 미사
광주가톨릭대학교 이사회
경제인회 송년회(교구청)
12월 27일 목포가톨릭대학교 이사회
12월 29일 희년 개막미사(임동)

교구 선교(볼리비아) 후원 안내



천주교 광주대교구 선교 후원 계좌
광주은행 170-127-003379
(재)광주구천주교(선교)
문의 : 062) 380-282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광주가톨릭박물관 특별기획전시

이춘만 크리스티나 작가 소장작품전

PraYer : 이춘만의 기도展



2024. 10. 11 Fri

2025. 7. 25 Fri

광주가톨릭박물관 특별기획전시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투카 138

TM

광주가톨릭박물관
GWANGJU CATHOLIC MUSEUM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om FM 99.9 MHz FM 99.5 MHz

YouTube 페이스북 광주가톨릭평화방송 OnAir

오늘의 강론 [월-토 (본방송) 06:50-07:00 / (재방송) 16:50-17:00, 23:50-24:00]
12.23(월)-25(수) 김동하 신부(장흥 본당) / 12.26(목)-28(토) 김민호 신부(소호동 본당)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집전 : 옥현진 대주교)' 녹음 방송 [12.25(수) 12:00-14:00]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종교 프로그램)' 월요일 코너 - '신부들의 수다' [12.23(월) 14:05-14:55]



강근태 베드로 신부, 박시흥 스테파노 신부, 최동현 로베르토 신부의 유쾌한 수다 시간입니다. 12.23(월)에는 성탄절 에피소드와 함께 '성탄 미니 콘서트'로 세 신부의 노래와 연주로 꾸며집니다. 이 시간은 어플 'cpbc뽕'과 유튜브('광주가톨릭평화방송' 검색)를 통해 화면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방송국 후원회 '지붕위에서 외쳐라'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4년도 방송국 후원회 '지붕위에서 외쳐라' 연간 후원금은 '본당 교무금' 및 '교구기관 후원회 후원금'과 합산되어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기부금 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2025년 1월 15일 이후) 가능합니다. 발급기관명 : (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주민등록번호 전체 숫자 등록 필수)
문의 : 062) 231-7701, 7709 / 연말 문의 전화가 많아 문자전용번호(010-4828-77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바오로 여행사(문의 : 062) 381-9004 / 홈페이지 : www.paulustour.com)

성모님 발현지(루르드, 파티마, 바르셀로나(12일) 3.11(화)-22(토))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심리상담실



대상 : 심적 혹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신자

방법 : 전화 예약 후 상담 진행

장소 :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1층 103호

비용 : 유료 / 문의 : 062) 510-2890~1



사회복지법인 Caritas GWANGJU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빵 다섯 물고기 돌' 후원회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정확한 정보가
등록되어있는 후원자님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오니, 인적사항 등록 및
확인(주소, 연락처 등)이 필요한 경우
후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 기쁨과 희망의 손길이 되어주세요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모아
교구 내 산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사목을 지원하고 이주민, 노숙인 등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후원 계좌 안내>

농협 605-01-353182

광주은행 019-107-310370

국민은행 551-01-1449-309

신협 131-022-255227

- 기부금 영수증은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시 동명이인 확인을 위해

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 신청 및 문의 : 062) 510-2881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gclei.kr 062) 380-2210~4

갤러리 380-2213 | 책다하기사당도서관 380-2218

2024학년도 겨울특강 안내

클래식기타

강사 : 서만재

- 종합반(평일) 25.1.6-2.17, 7주간 / 매주 월 10:00-12:00 / 수강료 10만 원
- 종합반(주말) 25.1.4-2.15, 7주간 / 매주 토 10:00-12:00 / 수강료 10만 원
- 개인레슨(초급) 25.1. 6-2.28, 7주간 / 개별협의 / 수강료 17만 원

오카리나

강사 : 임서영

- 초급) 25.1.8-2.26, 7주간 / 매주 수 19:00-21:00 / 수강료 7만 원
- 중급) 25.1.2-2.20, 7주간 / 매주 목 19:00-21:00 / 수강료 10만 원

대금

강사 : 채광자

- 25.1.6-2.24, 8주간 / 매주 월 19:00-21:00 / 수강료 11만 원

※ 수강신청 방법 : 전화, 홈페이지 www.gclei.kr

※ 수강료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 평생교육바우처카드 결제 가능
- 입금계좌 : 광주)170-107-051747 (재)광주구천주교회(교육원)

※ 수강생 주차장 이용은 차량번호 등록 후 가능

제5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진대전 전시

- 일시 : 12.20(금)-27(금) 09:30-18:00
- 장소 : 갤러리 현

기관·단체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교구 썰기도

일시 : 매주 월 09:30
장소 : 교구청(쌍촌동) 3층 경당
문의 : 총무 010-3162-0112

마리아사제운동 월례미사와 체나콜로기도

일시 : 12.23(월) 10:00-12:00
미사 :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장소 : 염주동 성당
문의 : 062) 373-4799

성령기도회

일시 : 매주 목 19:00-22:00
강사 : 12.26 신상옥 안드레아 찬양사도
장소 : 교구청(쌍촌동) 성당
문의 : 성령쇄신봉사회 062) 382-6002

청주 초정성령회관 송년대피정(2박 3일)

기간 : 12.27(금) 20:00-29(주일) 14:00
회비 : 2만 원(청소년 무료)
강사 : 김완식 요셉, 양창우 신부, 박효철 신부
서틀 : 조치원 역 18:20
청주버스터미널 다이소 맞은편 18:40
장소 : 초정성령회관
문의 : 043) 213-9103, 010-5482-6744

교부들의 사상 - 콘스탄티누스 전환

일시 : 12.28(토) 10:00 후원회 미사 후
장소 : 성모승천수도회 본원(쌍촌동)
문의 : 010-3771-5098

베네딕도회성경통독 8일 단식피정

기간 : 12.27(금)-1.4(토)
1.24(금)-2.1(토)
장소 : 화순수도원
문의 : 061) 373-3001, 010-3540-9001

성모술술 무료 치유대(對)피정

일정 : 매월 둘째 주 금-주일(2박 3일)
1.10(금)-12(주일), 2.7(금)-9(주일)
3.7(금)-9(주일), 4.11(금)-13(주일)
주제 :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문의 : 문자접수 010-3209-3955

씨튼 마음터 심리상담

내용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바우처)
우울, 불안, 대인관계, 영성, 가족, 커플상담
문의 : 010-6799-3732(유 무료 / 화정동)

2025학년도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신입생 정시 모집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취업률 79.8% 전국 6위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모집 : 간호, 자율전공(사회복지, 상담심리)
접수 : 12.31(화)-1.3(금)
문의 : 043) 270-0100, 0119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 신학과정 모집

대상 :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원서 : 2.14(금)까지
문의 : 02) 745-8339, 홈페이지 참조

장성프란치스코의집 조리원 / 요양보호사 채용

모집 : 채용시까지(홈페이지 참조)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문의 : 061) 390-9600

광주가톨릭대학교 주방 직원 채용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 신부 추천서
마감 : 12.27(금)
제출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중남길 12-25
광주가톨릭대학교 사무처
문의 : 061) 339-223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문의 : 02) 764-4741~3
www.holyfca.or.kr

선교·수도회

예수고난회 월피정

1) 1.11(토) 음악의 시작-전례음악
(시간경-성무일도)
2) 2.15(토) 삶에서 깨어나기
3) 3.8(토)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라
4) 4.26(토) '생활성가피정'
성가 어렵지 않아요
장소 : 일곡동 명상의 집
문의 : 062) 571-5004

성삼의 딸들 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 전화상담 후 결정
장소 : 담양군 대전면 대치1길 22-14
문의 : 061) 382-2214, 010-7159-9674

VDB 성소 모임

대상 : 40세 미만 미혼여성
카카오 채널 : 돈보스코여자재속회
문의 : 0507-1306-1505

미리내천주성삼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 상시, 전화상담 후 결정
장소 : 미리내 수도회 본원
문의 : 성소부 이 안젤로 신부 010-5195-3217
총장 이 스테파노 신부 010-9744-2974



목포가톨릭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모집학과 및 인원 : 간호학과 2명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는 수시 이월 인원)
모집기간 : 12.31(화)-1.3(금)

2025학년도 전기 편입생 모집

모집학과 및 인원 :
간호학과 - 일반편입학 7명, 농어촌 1명,
학사편입학 2명
사회복지학과 - 일반편입학 2명
유아교육과 - 일반편입학 4명
원서접수 : 1.2(목)-8(수)
인터넷 원서접수처 : 유웨이
입학상담 : 061) 280-5108, 5150
※ 목포가톨릭대학교는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일반대학입니다.

상설고해소

<< 교구청 성당

- 일시 : 화요일 13:30-15:00
금요일 18:30-20:00
- 장소 : 교구청 성당 교해실
- 성사집전
- 화요일 : 교구 내 수도회 소속 신부님
- 금요일 : 고통반회 신부님
- 문의 : 062) 380-2210~5

<< 산정동 준대성전

- 일시 : 수요일-주일 10:00-12:00
화요일-토요일 14:00-16:00
(월요일 휴무)
- 장소 : 산정동 준대성전 교해실(2층)
- 문의 : 061) 274-1004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등록 관련

(25.1.15 이후 조회 가능)

교무금, 각종헌금, 주일헌금(봉헌자가 확인된 경우), 후원금(교구 후원단체 포함)에 대해서 합산하여 '409-82-03705/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기부금으로 간소화 자료등록 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관련 법 강화로 타인명의(직계존비속 등)로 변경(납부 정정)하여 발급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연초에 교무금, 각종 봉헌금 등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납입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소속 본당 또는 각 후원단체

※ 교구 후원단체 : 군중후원회, 광주가톨릭박물관, 아버지학교, 가톨릭목포성지,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사목국, 성소국, 피아골피정집, 소록도아기사승성당교육관